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광주 북구 운동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오월 광주, 정의를 세우다' 주제의 5·18민주화운동 38주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 “5·18, 국방부 진실 왜곡 주도 정황”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앞으로 사실이 규명되고, 책임도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8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당시 국방부가 진실의 왜곡을 주도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한미정상회담 준비로 인해 광주에 오지 못했다. 대신, 이낙연이 이 총리가 대표로 기념사를 했다.

### 이낙연 총리,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

“향후 사실 규명, 책임 가려질 것  
과거 정부 범죄적 형태 깊은 유감”

이 총리는 기념사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부터 38년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도 끝내지 못한 일이 있다”고 진실규명을 우선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요즘 들어 5·18의 숨겨졌던 진실들이 새로운 증거와 증언으로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불안정했던 진실규명이 이제 채워져 가고 있다”

고 평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제정된 5·18특별법에 따라 진실규명위원회가 9월부터 가동되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실을 완전히 밝혀줄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과거 정부의 범죄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사실을 왜곡하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며 “진실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5·18 관련 끝내지 못한 두 번째 일로 ‘역사의 복원과 보전’을 들었다.

그는 “정부는 옛 전남도청이 5·18의 상징적 장소로 복원되고 보존되도록 광주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역사자료를 더 보완하도록 광주시 및 유관단체들과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진성 기자

## 문 대통령, 21일부터 이틀간 美 실무 방문... 22일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미국을 공식 실무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섯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8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미국 방문 일정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은 지난해 6월 28일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 11개월 만이다.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 靑 “남북회담 성공, 북미회담 성공 있는 가교 역할”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이번이 다섯 번째다.

문 대통령은 우선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편으로 출국한다. 미국 동부시각으로 같은 날인 21일 오후 워싱턴에 도착하는 문 대통령은 영빈관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이튿날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은 22일 정오께 배석자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한 뒤, 자리를 옮겨 확대 정상회담을 겸한 업무오찬을 갖는다.

이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36주년을 기념해 새롭게 단장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해 대한제국 초대 공사 후손을 격려할 예정이다.

곧바로 귀국길에 오르는 문 대통령은 한국시각으로 24일 새벽 도착할 예정이다.

남관표 차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

담은 북미 정상회담을 3주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북미 정상회담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두 정상은 직접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중점적이고 심도있게 협의할 예정”이라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행하는 경우 밝은 미래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 여야 “5·18 진상규명” 한목소리

제38회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찾은 여야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38년 동안 밝혀내지 못한 진실을 온전히 찾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서약의 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5.18 진상규명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며 “앞으로 또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광주로 부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참석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5.18정신의 희생과 헌신이 살아나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위한 화합으로 승화되길 바란다”며 “518특별법에 의한 518의 진실은 실제적으로 규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이 민주평화당 의원의 발의로 통과한 뒤라 감회가 다르다”며 “여성에 대한 성폭력 증인이 잇따르고 있는데 별도 기구를 만들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 한국당 전북지역 후보자 확정

도지사 후보자에 신재봉  
군산시장 후보에 이근열  
광역·기초 비례 후보에  
김경숙·조성희 등 6명

불어민주당 송하진 현 전북지사, 민주 평화당 이정엽 후보, 정의당 권태홍 후보, 민중당 이광석 후보이다.

이외함께 자유한국당은 군산시장 후보와 광역·기초의원(비례) 등 7명의 후보도 확정했다.

군산시장 후보에 이근열 (유)남북철강 부사장이 확정됐다.

광역·기초의원(비례) 후보자 중 광역의원(전북도의원) 후보자로 김경숙 전 김제시의원을 확정했으며, 기초의원 비례후보자로 전주시의원 후보자에 조성희 공교육살리기 전북학부모연합 상임대표, 군산시의원 후보자에 윤세자 민주평화당문화의 군산협의회 여성분과위원장, 익산시의원 후보에 송영자 익산애환운동본부 이사, 김제시의원 후보에 이길선 (사)패트럴맘 김제시지회장, 완주군의원 후보에 유은혜(주)진수종합건설 현장소장을 확정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